

行政圈과 信仰圈

고 광 민*

1. 머리말

어느 집단이 同一 堂神을 그들의 수호신으로 섬길 때 우리는 그 집단을 하나의 동일신앙집단 또는 동일신앙권¹⁾이라 할 수 있다. 하나의 동일신앙권이 하나의 行政上 단위 마을(里)별로 그 구획이 서로 일치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 사정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행정단위인 한 마을 안에서도 堂神, 특히 여러 本郷堂이 좌정해 있어 여러 신앙집단으로 나뉘어진다. 그리하여 행정구획상으로는 同一村落이지만 신앙권은 여럿으로 갈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 곧 行政圈이라는 외적 통합구속력이 신앙권이라는 내적 결집력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말이다.

본고에서는 내적 결집력을 표상하는 信仰圈과 외적 통합을 구축하는 行政圈과의 상관관계를 드러내는 제주도 한 지역의 조사를 통하여 濟州民 共同體的 삶의 一面을 알아보려고 한다.

2. 濟州 神堂들의 職能別 概念設定

제주 神堂들에 대한 직능별 또는 성격에 따른 분류는 이미 玄容駿²⁾님에

* 제주대

1) 필자는 이미 濟州島 神堂들의 信仰圈 문제를 다룬 바 있다. “堂神들의 역할분화와 그 신앙형태”. 比較民俗學 창간호, 1985, pp.155-180.

2) 李杜鉉·張壽根·玄容駿·崔吉城(1969). 「部落祭堂」—民俗資料調查報告書 第三十九號, 文化財管理局, pp.181-215 參照.

의하여 이뤄진 바 있다. 본고를 전개해나가는데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를 다시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本郷神

同一 信仰圈 내의 토지와 주민의 諸般事象을 차지하여 수호해 주는 神을 ‘本郷神’이라 하고 그 신을 모신 堂을 ‘本郷堂’이라 한다. 本郷神은 동일 신앙권내의 토지·산수·나무 등 자연의 주인임과 동시에 부락민의 호적·출산·사망·생업 등 생활전반을 차지하고 있는 신으로 통념되고 있다. 토지·산수 등 자연의 주인이라 함은 그 구역 내의 토지의 임자임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분향신을 지금도 ‘토주관’ 또는 ‘土地官’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분향신을 두고 신앙권역의 토지관이라 하는 것은 바로 신앙권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그 핵심이 되는 神이라고 할 수 있다.

2) 生業守護神

수렵·어업·농업·축산 등 신앙민들의 생업을 수호 管掌하는 신으로 이는 한 신앙권 내 신앙민들의 생업형태를 반영하는 것이다.

수렵을 관장하는 수렵신을 ‘山神’, ‘山神大王’, ‘산신백관’이란 이름으로 불린다. 山神의 主職能은 산에 있는 동물의 수렵을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산신 계통의 이름을 가진 堂神은 주로 山間 내지 中山間마을 등에 많다. 이것은 그 신앙민들이 그 옛날의 생업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지금은 수렵이 거의 사라지고 神의 성격도 수렵의 수호라는 측면이 전혀 없어져 버렸거나 혹은 약간의 잔형만 남기고 있을 뿐이고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민간수호신으로만 간주된다.

農神의 이름을 ‘세경’ 또는 ‘천황제석’이라 한다. 신앙민들로부터 신앙되는 경우들이 간혹 보인다.

漁業神은 海神이라는 이름 외에 ‘개당하르방’ ‘개당할망’ ‘개할망’ ‘龍女

玄容駿(1980). 「濟州島巫俗資料事典」. 新丘文化社.

(1982). “濟州島巫神의 形成”. 「耽羅文化」 創刊號. 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

婦人' '龍王'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이 제통의 이름을 가진 堂神은 일일이 그 사례를 들 필요가 없이 모두 해안촌락에서만 모셔진다.

3) 育兒 내지는 질병수호신

주로 어린이들의 產育과 치병의 職能을 갖고 있는 신이다. 이 신에게 빌면 허물·옴 등 피부병 치료에 効驗이 있다는 것이 신앙민의 통념이다. 매월 7, 17, 27일, 그리고 8, 18, 28일을 祭日로 삼은 堂이 흔하다. 그래서인지 '일렛당'(七日堂), 또는 '오드렛당'(八日堂)이라 하는가 하면, 또는 그 직능에 따라 '허물할당당'이라 하기도 한다. 대개 그 神格은 女神이다.

3. 明月里·東明里의 行政圈과 信仰圈

두 마을은 행정구역상 北濟州郡 翰林邑 內陸에 위치한다.³⁾ 여러개의 자연촌락들의 1~2km 간격으로 띄엄띄엄 흩어져 있으나 행정구역상으로는 서로 갈려 동쪽은 東明里, 서쪽은 明月里라 한다.

明月里의 行政圈: 명월리는 내륙에서부터 해변쪽으로 '上洞(쾌수골)一中洞—下洞(남동네)으로 불리는 자연취락들이 묶여 하나의 행정권을 이룬다. 현재 명월리 상동에는 주성인 高氏(30여戶)와 각성반이(30여戶)들까지 합해서 약 60여호의 주민들이 산다. 중동은 주성인 吳氏를 비롯하여 120여호의 주민들이 산다. 하동은 단지 도로 하나를 가운데 두고 행정권만 다를뿐 동명리 남문동과 동일한 자연촌락을 이룬다. 이 하나의 자연촌락을 두고 속칭 '남동네'라 한다. 설촌 성씨인 秦氏와 함께 梁氏가 주성을 이룬다. 남동네는 다른 자연촌락들과 입지조건상 다른 점이 있다. 상동과 중동이 주로 奉

3) 두 마을 사정을 이해하는데 두 편의 글이 도움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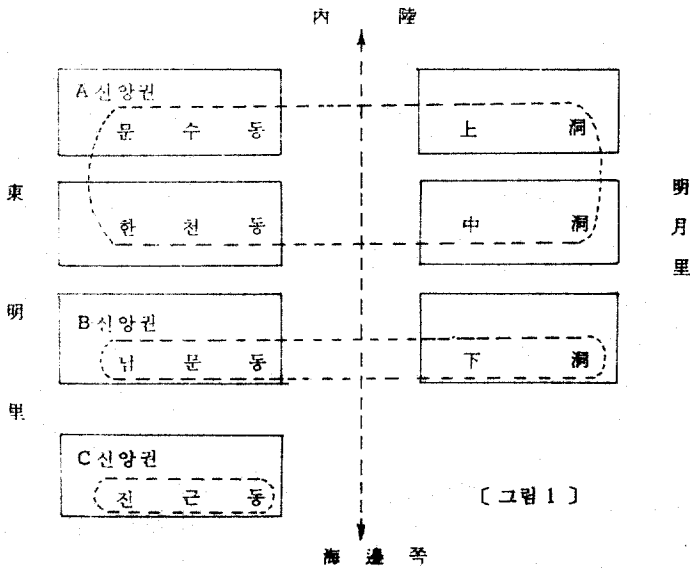
吳洪哲. '濟州島에 관한 地理學的 研究'. 경희大博士學位論文, pp.101-106 참조.

김영돈(1976). '民俗村指定保存에 따른 指定對象村落概要 및 保存方案'. 濟州道, pp.32-33.

天水에 依存하여 삶을 이어왔다면, 하동(남동네)은⁴⁾ 성안에 ‘域中有泉如川湧出 大旱不渴’하는 湧泉水에 依存 主畚田從의 농업풍토에서 살아왔다는 점이다.

東月里의 行政圖 : 내륙에서부터 해변쪽으로 ‘문수동(문수물)－하천동(한샘이)－남문동(남동네)－鎭近洞’ 네개의 자연촌락들이 묶여 행정단위상 동명리를 이룬다.

문수동은 동네안에 ‘문수물’이라는 용천수가 있는 자연촌락이라는 데서 붙여진 洞名이다. 50여호가 모여 산다. 주성인 梁氏와 文氏 그리고 각성바지들이 모여산다. 하천동은 ‘한샘이’라는 용천수가 있는 자연촌락으로 50여가호들 중 邊氏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하나의 氏族村落이다. 남문동은 앞에서 다룬 바와 같이 明月里 하동과 동일 자연취락을 이룬 동네다. 鎭近洞은 鎭과 가까이 위치한 자연취락이라는 데서 붙여진 洞名인 듯하다. 약 70여호의 주민들이 모여산다. 주성은 梁氏와 文氏다.



4) 李元鎭(1635). ‘耽羅誌’.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刊, pp.227-228 참조.

信仰圈 두 마을의 신앙권과 신앙형태는 윗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앙권이 행정단위의 마을 구별과는 썩 다르다. 행정권이 內陸에서부터 해변쪽으로 이어지는 횡대로 나뉜다면, 신앙권은 종대로 나뉘진다. 그래서 東明里의 문수동과 한천동, 明月里의 上洞 · 中洞 네개의 자연취락이 同一本鄉神을 모시는 同一信仰圈(신앙권 A)을, 東明里의 남문동과 明月里의 下洞이 ‘남동네’라는 하나의 자연취락을 이루면서 同一本鄉神을 모시는 신앙권(신앙권 B)을, 그리고 鎭近洞이 또 다른 신앙권(신앙권 C)을 이룬다.

‘신앙권 B’에 속한 神堂의 司祭者(매인심방)인 김○언(남, 68)氏가 제본한 본풀이 내용에 따르면, 이들 신앙권 내의 本鄉神들은 서로 가족관계를 이룬다.

옛날 樵진국에서 쫓겨난 이(樵진국에서 왔다고 하여 그 神名을 ‘樵진국’이라 함)는 제주로 넘어오나 먹고 살기가 어렵다. 사냥도구를 여럿 마련하고 한라산으로 오른다. 며칠동안 산길을 헤매다녀도 허탕친다.

바로 그때다. 어여쁜 여자가 보인다. 그녀는 정좌수 따님이다. 부모의 눈밖에 나서 쫓겨난 신세다. 한라산에 올라 나무 열매 따위를 따먹으며 살아간다. 서로는 만나자마자 딱한 입장임을 확인한다. 쉬 친숙해진다. 산중에서 먹고 살기가 어렵다. 정좌수 따님은 樵진국에게 사냥이 안됨은 산신기도를 안올렸기 때문이란단다. 떡과 밥, 제수를 마련하여 산신기도를 올린다. 사냥이 잘된다.

둘은 그날밤을 같이 지낸다. 樵진국은 정좌수 따님을 넘본다. 부모의 허락없이 안된다며 완강히 거부한다. 서로는 정좌수의 허락을 받으려고 산밑으로 내려선다. 정좌수는 이미 내걸을 떠난 딸이니 자신이 알아서 할 바가 아니란다.

어절 도리없이 다시 한라산으로 향한다. 한라산 중턱 ‘언약이도’에 이르러 백년 해로를 언약한다. ‘시름도’에 이르러 시름한다. ‘진지산’에 이르러 곤지한다. 애기 낳도’에 와서 아들 애기 셋, 딸 애기 다섯을 낳는다.

부부는 여러 자식들에게 각기 마을로 내려가서 본향신이 되라고 한다. 큰아들은 고한이(지금의 上大里)로, 셋아들은 하원(지금의 明月里 中洞), 작은아들은 ‘남동네’로 가라고 한다. 그리고 딸들은 조수리·저지리·상명리 등지로 각자 보내두고 나서 부부신은 岫岳里로 와 上洞에는 女神이, 하동에는 男神이 각기 차지하여 좌경한다.

1) A신앙권

A신앙권에는 聖所인 堂이 모두 세군데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랄

수 있는 本郷堂은 中洞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堂 안에 두 神이 모셔진다. 그 하나는 今岳系 본풀이상의 셋아들로 A신앙권 내의 本郷神인 축일한집(男神)이고, 바로 그 옆에는 本郷神의 婦神格인 술일한집(女神)이다.

이 堂의 정기적 祭日인 정월 첫 丑日에는 특별히 부정한 일이 없는 한 A신앙권 내에서도 明月里 上洞만을 제외한 모든 신앙민들이 두 神 몫의 제물(매 2기)을 차리고 와서 소규모로 新過歲祭를 올린다.

이 堂의 내력담인 본풀이라고 해봐야 위에서 소개한 본풀이 이외에는 별 다를 게 없다. 구체적인 신앙형태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으나, 두 神을 위한 祭壇 사이에 50~60cm 높이로 돌담을 쌓아 좌측에는 本郷神이, 우측에는 育兒 내지는 疾病守護神인 戌日한집이 좌정해 있다는 점에서 미뤄볼 때 제주 神堂들의 同一信仰圈 내에서의 신들의 역할분화와 그 신앙형태들에 대한 보편적 思考임을 추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신앙권 내 한천동 사정 : 행정구역상 東明里 한천동은 마을 중심에서 서쪽 동구밖에 '戌日堂'이라고만 불리는 聖所가 하나 있다. 한 신앙민(변규홍, 남·72)에 따르면, 지난날 A신앙권 내 本郷神의 婦神格인 술일한집의 神體(神堂에 있는 돌덩이 따위)만을 이곳으로 옮겨다가 모시고 있는 堂이라고 한다.

한천동 신앙민들이 섬기는 神堂은 두 군데로 나뉜다. 일부는 앞에 서술한 本郷堂을, 일부는 이 동네에 좌정해 있는 戌日堂만을, 또 어떤 경우에는 양쪽 모두 다니기도 한다. 그렇다면 한천동의 戌日堂은 바로 A신앙권 내의 育兒 내지는 疾病守護神인 戌日한집의 神體만을 이곳으로 옮겨다가 당을 마련했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당을 '가지가튼당' 또는 '가지갈라온당'이라 한다.

上洞의 사정 : 지난날 明月里 中洞에서부터 이곳으로 몇 세대가 이주해와 살기 시작하면서 오늘의 삶의 터전을 이뤘을 것이라는 明月里 上洞은, 中洞과의 거리가 2.5km나 떨어져 있다는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A신앙권 내의 本郷神인 丑日한집과 育兒 내지는 疾病수호신인 戌日한집의 神體를 모두 이 동네 북쪽에 위치한 '박니물'이라는 냇가로 옮겨다가 '가지가튼당'을 설립

한다. 祭物은 勿論 行祭方法이나 祭日이 A신앙권 내 本郷堂인 하원당의 것들과 같을 뿐만 아니라, 한 제보자에 따르면 그와 같은 사실이 더욱 명확해진다.⁵⁾

옛날에 이 동네사람들은 증동에 위치한 하원당을 다녔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년 전이었다. 명월 증동의 梁氏一家 출신의 한 할머니가 이 동네 高氏宅으로 시집와서 살고 있었다. 그 할머니는 하원당의 大祭日인 경월 첫 丑日에는 어김없이 찾아갔다. 어느날 그 하원당의 大祭日이었다. 마침 그날은 폭우가 쏟아졌다. 그래도 할머니는 발길을 재촉했다. ‘박니물’(乾南川 상류의 이름임)에 이르러서는 그만 냇물이 넘쳐 도저히 건널 수가 없게 되었다.

할머니는 바로 그 냇가 경결터에다 祭物을 차려 놓고 멀리서나마 堂神에게 祭물을 올릴 수 밖에 없었다.

그 뒤로 오늘날까지 바로 그때 양씨 할머니가 제물을 올렸었던 그 자리가 이 동네 사람들의 堂神을 모신 堂이 되고 말았다. 바로 이 할머니는 나(제보자)의 6대조 할머니시다.⁶⁾

이상에서 볼 때 A신앙권 안에는 4개의 자연취락들이 明月 中洞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권을 오랫동안 형성해 온 셈이다. A신앙권 안의 두 神은 서로 夫婦관계를 이루면서 男神인 丑日한집은 本郷神的 역할을, 女神인 戌日한집은 育兒 내지는 질병수호신의 역할을 담당해 온 셈이다.

그리고 4개의 자연취락들은 행정구역상으로는 다르나 신앙권은 동일하므로 A신앙권 안 동명리의 한천동·문수동 그리고 명월리 상동의 자연취락들은 그 신앙권 중심지인 명월리 증동에서 분파해간 취락들임을 추론할 수도 있으나 오늘날 그 거리상의 문제로 그 신앙권이 분리되어가는 과정을 보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2) B신앙권

A신앙권의 사정과는 달리 행정구역상 東明里 남문동과 明月里 下洞의 B

5) 몇해전 하원당의 司祭者인 문○인씨가 生存해 있었을때까지만 해도 그 사제자가 이곳 당에까지 와서 제의를 담당해 오다가 오늘에 와서는 이 마을에 거주하는 ‘삼승할망’이 대신 사제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신앙민들 스스로가 직접 行祭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한다.

6) 1984. 8. 2. 翰林邑 明月里 上洞 高時宗(남, 78)씨 담.

신앙권 안에는 神들의 역할은 물론 상주처인 堂이 따로 있다. 역할이 다른 두 神이 서로 달리 좌정하게 된 요인에 대해서는 이미 신들의 내력담인 본풀이상에 고정시켜 왔다(여기에 소개하는 본풀이는 앞서 소개한 본풀이에 이어지는 것이다).

남동네로 온 男神(작은아들신)은 어 동네로 와 장가를 든다. 어느 날 사냥나간 男神은 석달 열흘이 지나도 돌아올 줄 모른다. 기다리다 지친 女神은 찾아나선다. 산길을 헤맨다. 목이 마른다. 산돼지 발자국에 물이 고여 있어 눈에 띈다. 물이 더럽다. 그 위에다 치마자락을 덮고 울 틈에 고인물을 빨아 마신다. 산돼지털이 이빨 틈새로 들어가 박히더니만 빠지지 않는다. '회심불'로 그을려 녹인다. 부정한 냄새는 가지질 않는다. 집으로 돌아온다. 그래서야 男神이 돌아오는 것이다.

돌아온 男神은 이상하다는 듯이 코를 쿵쿵거린다. 어데서 날땀내가 난다며 성화다. 女神은 모든 사실을 알려 바친다. 화를 낸다.

“지금 당장 땅 가르고 물 가르자, 어서 남풍(마복풍)부는 밭으로 내려서라!”

그 말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부부신은 살림을 가른다. 男神은 그 자리에 좌정해 있으면서 이 마을 본향신이 되고, 女神은 남풍 밭으로 가 좌정해 있으면서 이 마을 어린애들의 질병과 오곡의 병충해를 관장하는 신이 된다.⁷⁾

본풀이 내용대로 B신앙권 내의 본향신은 乾南川 바로 서쪽에, 육아들의 질병 내지는 오곡의 병충해를 관장하는 女神은 본향당으로부터 다시 서남쪽으로 약 300여m 떨어진 위치에 좌정해 있다. 본향신인 男神은 당이 위치해 있는 곳의 지명이 '서문'이라서인지 '서문하르방' 또는 祭日을 따라 '丑日한집'이라 하고, 女神은 그 神을 위한 祭日이 정월 8, 18, 28일이기 때문에 '오드랫당(八日堂) 또는 '오드래할당'이라 한다.

B신앙권 내에는 男神과 女神이 따로 좌정해 있는데다가 본향신을 모신 바로 옆에 農神인 제석천황을 따로 모시기도 한다. 그리고 육아들의 질병을 관장하는 神이 바로 그 역할 이외에도 오곡의 병충해까지 관장하고 있다는 점은 B신앙권 내의 농업형태가 田作風土인 이웃 신앙권들과는 달리 主畜農으로, 그 병충해로 인한 고통은 마을 전체 공동의 문제거리로 대두되어 왔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7) 1984. 8. 2. 翰林郡 옹포리 김○연(남, 68)씨로부터 이야기 형식으로 들은 본풀이에 의함.

3) C신앙권

행정구역상 東明里 진근동의 C신앙권 내에는 ‘일렛당’(七日堂)이라고 하는 당 안에 하나의 신만이 모셔지고 있다. 그 당의 명칭으로 미뤄 볼 때 여타 신앙권 내의 것과 같이 育兒 내지는 疾病守護神의 성격의 女神을 모신 당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당은 육아 내지는 질병수호신적 성격의 당이면서도 本鄉堂의 기능도 겸한다. 이 堂神은 정월 7일에 정기적으로 여타의 本鄉神들처럼 新過歲祭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본향신이라고 할 수 있고, 정월 17, 27일, 그리고 8월 7, 17, 27일의 정기적 祭日 이외에도 신앙민들 중 어린애가 아팠을 경우에 비정기적으로도 이 당에 찾아가고 있다는 점과 신의 食性이 여러 육아 내지는 질병수호신적 성격의 堂神들처럼 돼지고기를 좋아한다는 점에서 미뤄볼 때에는 육아 내지는 질병수호신적 성격의 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堂의 司祭者(매인심방)와 김○언씨의 말에 따르면, 이 당의 夫神되는 神은 上大里 신앙권 내의 本鄉神인 ‘고한이한집’이라고 한다.

上大里 신앙권 내에는 고한이한집이라고 칭하는 본향신 이외에는 堂神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본향신이 본향신의 직능은 물론이러니와 育兒 내지는 疾病守護神의 職能을 겸하고 있다.

이러고 보면, C신앙권과 上大里 신앙권과는 원래 同一信仰圈이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해 버릴 수는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4. 마 무 리

濟州의 마을 또는 同一信仰圈(필자는 한 마을의 개념을 행정단위로만 규정지을 수는 없다고 믿는다)은 대부분 集姓村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同一信仰圈 내의 여러 신앙민들은 여러 직능을 갖는 堂神을 두고 ‘조상’이라 한다. 유교적 祭法으로 모시는 혈연조상과는 물론 구별하면서 둘 다 조상이라

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 점⁸⁾에 주목할 만하다. 그만큼 공동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이웃은 혈연 이상의 互惠관계에 있다는 말이다. 그 영역을 관장하는 堂神을 '조상'이라 하는 것을 보면, 그 영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동일신앙권 사람들은 혈연집단 이상의 끈끈한 관계를 맺어 同質感을 형성하면서 互惠的 관계를 강조하는 보이지 않는 장치가 되어 있는 듯싶다(主田作: 主畚田從 등). 그래서일까 외적 통합을 구축하는 행정구획도 오랫동안 同一信仰圈을 유지해 온 동일신앙민들의 결집력을 끊어 놓지는 못하는 것 같다.

8) 玄容駿(1986). 「濟州島巫俗研究」. 集文堂, p. 173.